

여 하면 94~100%의 효과가 있으며, “시트로산 피페라진”은 물 1l 양 440mg 비율로 희석 24시간 투여하면 앞의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나) 페노티아진(Phenotiazine)

약효에는 차이가 없으며,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선 체중 매kg당 2200mg까지 투여하여야 한다.

(다) 히그로마이신(hygrmycin B)

이것을 사료 1톤당 8gm의 비율로 혼합 8주 일간을 계속 투여 하면 닭의 회충 뿐만 아니라 다른 선충류의 감염 예방관리에서 특출한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6. 회충감염의 예방

닭회충감염에선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계(成鷄)보다 병아리(幼雛)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으

면 안된다. 즉, 성계와 병아리는 가능하면 분리 사육 할 것이며 특히 계사의 바닥흙과 운동장 바닥흙을 주기적으로 깊이 10cm정도 파고 경토(淨土)와 바꿔 줄 것이며, 흙바닥은 견조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닭 회충의 증감염(重感染)의 예는 과도한 습기가 발생하는 깊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경우의 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환기통, 사료통 및 물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로 사료통과 물통주위에 깔 깊은 우리의 다른곳에 보관된 젖을 깔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충증을 앓고 있는 환계(患鷄)를 조기발견, 격리치료 하여야 함은 물론, “지렁이”와 같은 벌레지가 닭장내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 ◇ 캠퍼스 뉴스 ◇ ◇◇◇◇◇◇◇◇◇

♣ 고려대학교

새봄을 맞은 고려대학교 축산학과에는 경사가 겹치게 되었다.

70학년도 농과대학 수석 졸업생이 축산학과의 이 용선군이며 수석입학 역시 이 상호군이 차지하여 축산학과의 명예를 높인 것이다.

한편 입시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기지개를 띠는 귀염동이 핫명아리를 맞이하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금년 졸업생의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대학원 1명, 고려대 축산과 조교 1명, ROTC 8명, 농협 2명, 방사능농업연구소 1명, 제약회사(국제약품) 2명, 교사 9명, 자영 8명이며 그외에는 군입대이다. 특히 지인숙양은 영원한 직업(결혼)을 마련하였다. 금년도의 업선된 신입생은 40명으로서 앞으로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고려대학교 주재원 박춘삼〉

♣ 서울대학교

수원에 자리잡은 서울농대 축산학과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60년에 걸친 동대학의 축산학과 동문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4월 11일 동대학의 교수회의실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회를 끝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강영선박사(서울대 문리대 교수), 이재근박사(고려대 농대 교수)와 오봉국박사(서울농대 교수)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으며 동문회의 활동 및 발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각기별로 간사가 선임되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동문회 회장에는 이재근박사가 피선되었으며 동문회 본부는 서울농대에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년 4월 중에 개최되는 「축산의 날」에 총회를 가질 것이라 한다.

한편 금년도 「축산의 날」 행사는 4월 25일(일요일) 본대학 교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하며 전국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다수 참석을 희망한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주재원〉

○……전국 각대학, 농업전문학교의 학교소식 제공을 환영합니다 평집자 주……□